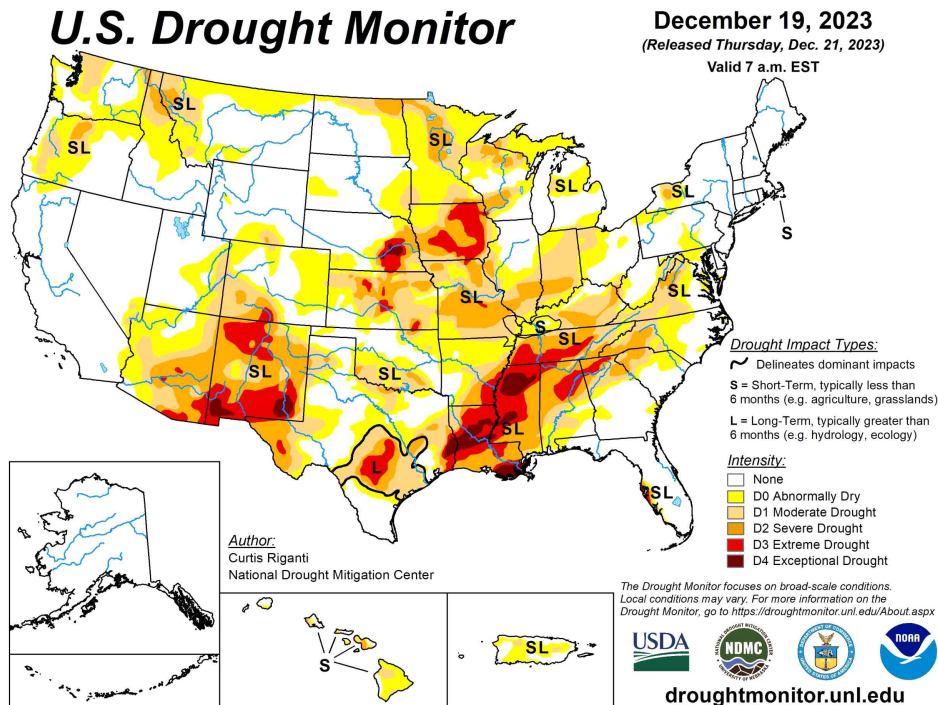


12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0, No. 52)

□ 미국 기후 현황(12/17-12/23)

주초에 대서양 해안에 폭풍 하나가 폭우와 강풍과 철썩이는 파도로 동부 해안 주들의 일부를 강타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뉴잉글랜드까지의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홍수가 메인 주의 일부 지역을 강타했으며 물이 1987년 4월 이후로 안드로스코긴 강과 케네벡 강 일부를 따라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또한 폭풍이 한창일 때에 메인 주의 수만 명의 고객이 전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폭우(그리고 고지대에서는 눈)가 캘리포니아를 스쳐 지나가며 남서부를 가로질러 결국에는 내륙으로 밀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국내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강수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따르면 시에라네바다를 덮은 눈덩어리들의 평균 물 등가 수치는 주말까지 2인치를 거의 넘지 못했는데 이는 12월말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 주가 끝나가면서 국내 중부 전역에 걸쳐서 복잡한 폭풍 전선이 발달했고 그 후 유난히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점점 더 많은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동반되었다. 12월 23일 내내 평원과 중서부 전역에 걸쳐서 약간의 강수가 발달했을 뿐이었고 12월 24~25일에는 더 많은 비와 눈과 바람이 발생했다. 평원과 중서부 북부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15°F 높았고 한편 서부와 북동부 대부분도 상당히 따뜻한 날씨로 덮였다. 대조적으로 남동부는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5°F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평년에 비해 가장 추운 날씨는 조지아와 주변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 ( )

자료없음

## □ 세계 기후 현황(12/17-12/23)

### ■ 유럽: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이 2주 연속 계속되었는데 더 건조한 조건을 보인 서부 및 남부와는 대조적으로 중유럽과 북유럽에서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베리아반도 서부 (평년보다 1-4°C 낮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모니터링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6°C 높았다. 결과적으로 주말에는 폴란드 북동부와 발트해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륙 대부분의 주요 겨울작물 지역들에서는 보호해주는 눈 덮개가 없었다. 한편 연속적으로 불어온 대서양의 폭풍들이 영국과 프랑스 동부에서부터 동쪽으로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들 (10-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을 만들어내었다. 그 비가 늦철 야외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했지만 휴면 중인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반대로 프랑스 나머지 전체 지역에서는 유리하게 더 건조한 날씨 덕분에 이전에 지연되었던 야외 작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맑은 하늘도 계절 야외 작업과 겨울곡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 ■ 구소련(서부):

자료 없음.

### ■ 동아시아:

자료없음

###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서는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들의 근권 토양 수분을 평균 내지 평균 이상으로 유지했다. 그 비 때문에 지역의 야외작업은 느려졌지만 비교적 큰 증발 손실을 되받아 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후반과 40도 초반까지 올라가 증발 속도를 높였고 여름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했다. 밀 지대의 다른 곳들 곧 남부와 서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수확을 도왔다. 지난 주 남동부에 흠뻑 젖는 비가 내린 후에 더 건조한 날씨가 겨울작물의 수확이 추진력을 다시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서호주에서는 계속되는 건조가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마지막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균적으로 평년에 가까웠지만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다소 낮았다 (평년보다 약 1°C 낮음)



■ 아르헨티나:

광범위하게 내린 폭우 덕분에 여름곡물들, 유지작물들 그리고 면화의 전망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이전에 건조했던 북서부 농업 지역들 (특히 산티아고델에스테로와 살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강우량이 25-100 mm 이었다; 여름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에 유리하기는 했으나 그 비는 강하게 내려서 겨울곡물의 수확을 방해했고 일부에서는 도복을 일으키기도 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온화한 날씨가 습함을 동반하면서 산티아고델에스테로처럼 먼 북쪽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4°C 낮았다. 일반적으로 평년보다 서늘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보다 낮 최고 기온이 서늘한 남동부 지역에서는 섭씨 30도 초반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더 따뜻한 북서부 지역에서는 40도 초반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21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69 및 71 퍼센트 파종되었다; 면화는 작년의 47 퍼센트와 비교해서 61 퍼센트 파종되었고 한편 밀은 66 퍼센트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15 포인트 뒤쳐졌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및 북동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위와 건조함이 잠시 발생한 이후 소나기가 강해지면서 대두와 기타 작물들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북동부 내륙에 몇 군데 건조한 소구역들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마투그로수에서부터 동쪽으로 대서양 해안까지 내린 강우량은 총 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 였다. 한 주를 따뜻하게 시작한 후 (군데군데 낮 최고 기온이 40°C에 도달) 그 비는 기온을 보다 계절적인 수준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12월 22일 현재 외딴 지점들에서 대두 수확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1 퍼센트가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더 남쪽으로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들 (10-35 mm, 국지적으로 50 mm 초과)이 여름작물들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고 한편 파라나, 마투그로수두술 및 상파울루 등 북쪽으로는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해당 주가 시작되면서 더 건조한 남부 지역 일부에서는 북쪽에서처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후반에 도달했으나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온화했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12월 21일 현재 89 퍼센트 파종되었고 현재 지상으로 올라온 옥수수 중에서 70 퍼센트를 막 넘는 부분이 개화 내지 성숙한 상태다; 대두는 90 퍼센트 파종되었으나 일찍 심은 것들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다. 파라나에서는 초작 옥수수의 거의 90 퍼센트가 12월 18일 현재 생식기에 도달했고 대두는 70 퍼센트가 그러했다.